

To all who share the title of Sister of Charity with me, my name is Barbara Ann Boss, I am the oldest of ten children and when my mother past away my father married a woman with nine children so I became the oldest of nineteen. You might say I spent my life taking care of young children. I remember the day that one of my high school teachers at Elizabeth Seton High School asked me two questions: Did I ever think of becoming a sister? and If I did, what kind of work would I be interested in doing? My answers were: Yes I thought about it some years ago -- but not now -- and I would like to work with young children. God has a way of giving a shove to someone who needs more than a nudge.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60. Now some might say I am old but in the United States Province I am still considered one of the young sisters. It is nice to be considered forever young!



I have been given many opportunities during my religious life. I graduated from Seton Hill University, attended Duquesne University for a Master's in Education, and attended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for a Master's in Administration. And just to keep me firmly grounded in the real world, I attended Pittsburgh Beauty Academy, earning a license in cosmetology. After teaching second grade for about 25 years I became an Education Coordinator at Seton Hill Child Care. In 1988 I came full circle and returned to Elizabeth Seton High School, now known as Elizabeth Seton Center, as Director for the Early Education Department. In 2001 I became CEO of the Center. Our Early Education Department has



infants beginning at six weeks old; we have toddlers, preschoolers and after-school programs, and the Adult Day Service cares for the frail elderly. This gives us the perfect opportunity to do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offering programs for the young and the "young at heart." No matter what age we are, growing and learning are lifetime activities, and people of all ages are bound together by what they share, not just by age or interest.

One of my favorite biblical quotes used to be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Now my horizons have broadened. Working with children and the frail elderly, I better understand what Christ meant when He said, "Unless you become as little children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사랑의 씨튼 수녀회의 모든 수녀님들, 발바라 앤 보스(Barbara Ann Boss) 수녀입니다. 저는 10 남매 중 첫째랍니다. 그런데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새어머니에게는 9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19 남매 중에 맏이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평생 아이들만 돌보며 살았다고 하겠지요? 사실 저에게는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를 다닐 때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수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 있니? 수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저는 “네, 몇 년 전엔 수도자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법을 알고 계시지요. 결국 저는 1960 년에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관구에서는 젊은 수녀에 속한답니다. 영원히 젊은이로 남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요!



수도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씨튼 힐 대학을 졸업하고 듀케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노트르담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또 세상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 피츠버그 뷰티 아카데미(Pittsburgh Beauty Academy)에서 미용 관련 자격증을 땀어요.



그리고는 25 년 동안 교직에서 2 학년 학생들을 가르친 후 씨튼힐 차일드 케어(Seton Hill Childcare)의 교육 담당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1988 년 저는 이렇게 먼 길을 돌아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의 모교 씨튼힐 고등학교의 자리에 설립한 엘리사벳 씨튼 센터(Elizabeth Seton Center)의 유아교육 담당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2001 년에 엘리사벳 씨튼 센터의 CEO 가 되었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아 교육은 생후 6 개월 아기들부터 대상으로 하며, 4-5 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 씨튼 센터는 어린이와 ‘마음이 어린이와 같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장과

배움은 평생동안 이루어지는 삶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평생동안 배우고 성장하며 나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아닌 나눔으로써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저는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는 성경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가난한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